

청년노동자 김용균 3주기, 온전한 추모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

조연주 기자 | © 승인 2021.12.06 16:05

故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개최
 “비정규직 노동문제 드러낸 죽음 3년 뒤…달라진 것 없어”
 “내가 김용균이다” 비정규 취약 노동자들이 외치다



故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가 6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연주 기자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망한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 문제와 생명과 노동안전문제 앞에서 그의 죽음마저 온전히 추모할 수 없는 사람들의 분노가 모였다.

故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가 김용균 씨의 생일이기도 한 6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없는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김용균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 씨가 사망했다. 입사 3개월차였던 김 씨는 혼자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가 벨트에 끼어 숨졌다. 김 씨의 죽음은 비정규직·하청·취약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참가자들은 김 씨의 죽음을 둘러싼 특별조사위까지 꾸러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안 22개가 발표되는 등의 상황을 지켜보며

노동조건이 개선되나 싶었지만, 오히려 산재는 더 늘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도 더 많이 생겨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예견된 인재를 막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만들어졌지만, 산재 사망사고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법의 적용을 유예받거나 피해간다. 김용균들은 김용균법에 의해서도 원청이 책임질 ‘우리 직원’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며 “안전하지 않는 작업 현장에서 위험을 더 가중시키는 비정규직은 이제 철폐돼야 한다”고 외쳤다.



故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가 6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조연주 기자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여전히 죽음의 현장을 멈추지 못했다.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 죽을 수 밖에 없었다. 김용균은 열심히 일해서 죽은 것’이라며 유족에게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김용균의 죽음 이후 3년을 맞이하는 지금은 안전한가. 2인 1조를 위한 예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자리에 나와있는 비정규직 건보 동지들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대통령 후보라는 자는 노동자의 죽음을 개인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3주기를 맞으면서도 온전히 추모만을 위한 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비정규직 문제와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3년이 버거울 정도로 달려왔다. 그러나 지난해보다 올해 산재 사망사고가 더 많았다는 통계를 듣고 산재를 막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올 초부터 용균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가리는 재판이 시작됐다. 사측은 현장 컨베이어 벨트가 공항 컨베이어 벨트처럼 안전한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막말을 해댔다”고 했다.

아울러 “본인들이 현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피해자 유족에게 뒤집어씌우는 사태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분노스럽다. 용균이 같은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일해야 하고, 권리를 포기해야 일자리를 얻는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우리가, 제가 더 힘 낼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故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가 6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미숙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 조연주 기자

신대원 발전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 한국발전기술지부 지부장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연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0%를 달성하셨다”고 꼬집으며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이 발표됐지만, 김용균과 같은 당사자들의 고용과 처우, 안전은 바뀌지 않았다. 원청은 여전히 하청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고, 노무비 중간착취의 지옥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최효 청년 쿠팡노동자, 민변 노동위 소속 손익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법률팀장,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여등 스님, 김주환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의 발언들도 이어졌다.

이들은 오는 10일까지 추모주간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추모제, 8일 원하청사업주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9일 김용균특조위 이행점검 보고회 10일 추모결의대회 등이 주요일정이다.



故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가 6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연주 기자



故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가 6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연주 기자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